

유전스 · 시스템과

앞으로의 金利推移

趙 春來

(韓國銀行 · 外換受給課長)

1. 머리말

유전스輸入이란 輸入業者가 国内外國換銀行의 支給保証(usance L/C 開設)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信用을 供與받아 물품을 輸入하고, 一定期間 후에 同 輸入代金과 信用供與期間의 利子를 決濟하는 방식의 輸入을 말하며, 外國換銀行이 支給保証을 한다는 점에서 D/A輸入과 区分된다. 이는 또한 信用供與者에 따라 外國金融機關이 信用을 供與하는 Banker's usance와 輸出商이 직접 信用을 供與하는 Shipper's usance로 구분된다.

유전스輸入은 一定期間 輸入代金決濟를 猶豫하게 되므로 輸入業者는 輸入物品의 販賣代金を 回收하여 同 代金を 決濟할 수 있어 原資材輸入에 따른 資金負擔을 排除할 수 있으며, 輸出業者 역시 輸出代金과 信用供與期間의 利子에 대하여 公信力이 높은 金融機關이 支給保証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輸出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유전스輸入은 輸入業者의 資金負擔輕減과 輸出業者의 債權의 安全確保라는 利點을 갖고 있기 때문에 國際적으로 널리 利用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스輸入을 完全 自由化할 경우, 不必要한 輸入需要를 유발하게 되고 過度한 貿易 信用導入을 招래하게 되는등 一國의 國際收支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적절한 規制를 加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바, 우리 나라도 主要原資材등에 限해서만 이를 許容하는 등 直接 間接으로 規制를 하여왔다.

한편 유전스輸入은 輸入代金 決濟猶豫에 따른 輸入業者의 資金負擔 輕減效果가 있는 反面, 信用受惠에 따른 資金 코스트를 負擔하여야 되기 때문에 對内外資金調達 코스트의 變動 즉, 國內 「원

貨資金 調達金利와 유전스信用供與金利의 變動에 따라 同 方式에 의한 輸入選好도는 크게 左右되며, 우리나라와 같이 變動換率制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換率變動幅도 큰 變數로 작용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전스 管理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延支給수입실적動向 및 對内外金利와의 관계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2. 우리나라의 유전스輸入管理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스輸入은 輸入代金 決濟猶豫를 통한 輸入業者의 資金負擔 輕減效果가 있기 때문에 이를 適切히 規制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輸入輸要를 유발하게 되고, 過度한 短期資本導入을 초래하게 되는등 國際收支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輸入依存도가 높고, 과거와 같이 國內金利水準이 對外金利에 비해 相對的으로 높은 경우에는 同 方式에 의한 輸入選好現象이 발생하여 이를 適切히 規制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전스輸入뿐만 아니라 D/A 輸入을 포함한 延支給輸入을 管理對象으로 하여 왔는 바, 75年 2月 該간 延支給輸入과 關聯된 財務部長官의 각종 通牒을 통한 整備하여 「延支給輸入運用要領」을 制定, 시행하면서 부터 종합적인 管理体制를 갖추게 되었다. 76年 6月에는 同 內容이 外國管理規程에 흡수되었으며, 그후 數次의 改正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延支給輸入管理의 內容을 보면, 對象品目에 대한 規制와 延支給期間에 대한 規制가 主軸을 이루고 있다.

延支給輸入對象品目は 輸出用原資材와 原油, 原

綿 原木을 비롯한 主要原資材등 別途 指定品目으로 크게 区分하고, 그때 그때의 對内外經濟与件을 감안하여 指定品目を 擴大 또는 축소조정하는 방식으로 管理하여 왔었다. 그러나 政府는 世界的인 外換自由化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今年 2月 이 와 같은 포지티브方式(positive list system)에 의한 指定告示制를 廢止하고, 實行關稅率 20% 以內인 모든 品目에 대하여는 原則的으로 延支給 輸入을 許容키로 하는 네가티브方式(negative list system)으로 轉換하였다.

한편, 延支給期間에 있어서는 上記「延支給輸入 運用要領, 制定當時의 경우, 유전스方式과 D/A方式 Banker's usance와 Shipper's usance 등으로 区分하고, 이에 따라 許用期間을 각각 다르게 制限하여 왔으나, 76年 6月에 와서는 이와 같은 差等 規制를 弛緩하고, 一律的으로 180日以內의 기간으로 調整하였으며, 다만 美国商品信用公社(C. C. 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의 信用供与 로 輸入하는 特定品目에 대하여만 同 資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80日을 超過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上記 延支給輸入期間은 國際收支事情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었다. 77년에는 海外建設用役 收入의 급격한 增加로 國際收支사정은 好轉되었으나, 海外部門을 통한 通貨増發이 問題点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短期貿易信用導入을 抑制하기 위하여 同年 9月에는 종전의 180日以內인 延支給 輸入期間을 150日以內로, 同年 11月에는 다시 120日以內로, 同年 12月에는 또다시 90日以內로 각각 短縮하였으며, 특히 日本, 台湾등 標準航海日數 10日 以內인 地域으로 부터의 輸入에 對하여는 60日以內로 크게 短縮하였다.

그러나 79년에 들어 第2次 石油波動을 비롯한 國際原資材價格暴騰과 世界경기침체現象으로 國際收支가 크게 惡化됨을 契機로 貿易信用등 短期資本導入의 必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延支給수입기간이 다시 延長되었는 바, 同年 8月에는 종전에 90日以內이던 延支給수입기간이 120日以內로, 同年 12月에는 다시 180日以內로 각각 延長되었다.

또한 延支給輸入에 對하여는 對象品目과 延支給期間에 대한 規制이외에도 金利條件規制와 輸入担保金적립義務賦課등을 하여 왔었으나, 現在 이들 制限은 모두 解除되었다.

金利條件에 있어서는 最高金利인 基準金利를 정하여 이를 수시로 調整¹⁾하여 왔으나, 78年 4月에 와서 廢止²⁾된 바 있으며, 品目에 따라 5~20%를 積立토록 되어있던 輸入担保金적립의무도 금년 2月부터 免除되었다.

註 1) 延支給期間 6個月未滿인 경우 : 3個月滿期 LIBO 또는 美国 Prime rate + 0.625~1.5%
2) D/A輸入의 경우는 80年1月19日에 廢止

3. 延支給輸入実績

우리 나라는 原資材의 對外依存도가 높고 主要原資材 위주로 延支給輸入을 許容하여 왔기 때문에 과거 延支給輸入은 原油·原綿·原木등 主要原資材가 대종을 이루어 왔으며, 延支給輸入期間調整 등 政府의 延支給輸入政策에도 큰 영향을 받아 왔는 바, 이는 대부분 決濟期間 1年以內의 短期 유전스方式에 의해 이루어졌다.

78年 中에는 國際原資材價格의 安定 및 77年 下半期 以後의 延支給수입기간 短縮등 延支給수입억제 政策에 힘입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延支給輸入比重이 30%以下까지 低下되었으나, 79年 以後 第2次 石油波動을 비롯한 國際原資材價格暴騰과 延支給輸入期間 연장조치등으로 延支給輸入比重이 급격히 높아져 總輸入의 40~50%를 占有하게 되었다.

(單位：百萬「달러」)

	1978	1979	1980	1981
A. 總 輸 入	12,433.5	16,869.2	19,170.4	21,526.9
B. 原 資 材 輸 入	8,024.2	11,260.2	14,171.8	15,342.6
C. 延 支 給 輸 入	3,635.9	6,893.4	10,116.7	10,093.8
原資材輸入比重(B/A, %)	64.5	66.8	73.9	71.3
延支給輸入比重(C/A, %)	29.2	40.9	52.8	46.9
유전스輸入/ 延支給輸入(%)	97.4	97.2	97.6	97.9
短期延支給輸入 / 延支給輸入(%)	90.8	95.6	96.6	96.6

가. 主要品目別 動向

延支給수입실적을 主要品目別로 보면, 原油, 原綿·原木등 主要원자재와 糧穀이 全体の 70%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單一品目으로서는 原油가 전체의 40~50%의 높은 占有率을 보이고 있다.

또한 延支給輸入이용율을 보면, 79年 以後 40~

50%의 높은 수준을 보여 왔는 바, 이를 品目別로 보면, 原油(76~98%) 原綿(70~97%) 糧穀(60~92%) 등이 輸入의 대부분을 延支給輸入에 의존하고 있고, 餘他 주요원자재도 總輸入의 50% 이상을 延支給方式으로 輸入하고 있는 実情이다.

이들 品目中 原油와 糧穀의 경우를 보면, 延支給輸入依存率이 低下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原油의 경우에는 大韓石油公社가 쿠웨이트産 原油를 全量送金方式으로 도입하는등 原油輸入方式이 多樣化되고 있기 때문이며, 糧穀의 경우에는 一覽拂方式에 의한 米穀輸入이 급격히 增加하였기 때문이다.

反面 石炭의 延支給輸入은 顯著히 增加하는 추세를 보였는 바, 이는 国内需給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輸入急增에 基因한 것이다. ↗

나. 決濟期間別 動向

延支給輸入 実績을 決濟期間別로 살펴보면, 短期 延支給輸入의 경우에는 政府의 延支給輸入 期間調整에 따라 決濟期間別 実績이 크게 變하여 왔으나, 長期 延支給輸入에 있어서는 大부분 美国商品信用公社(C.C.C)의 信用供与로 도입되는 關係상 年 3億 「달러」 線의 一定水準을 유지해 왔다.

78년에는 主要原資材의 延支給輸入 期間을 90日 以内로 制限하였기 때문에 60日 超過 90日 以内의 延支給輸入이 전체의 約 60%를 占有하여 主流을 이루어 왔으나, 79年 下半年期 2次에 걸친 延支給 수입 기간 延長措置로 最長 180日까지 許容하게 됨에 따라 延支給 期間이 점차 長期化하여 81년에는 120日 超過 180日 以内의 延支給輸入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게 되었다.

決濟期間別 延支給輸入 実績 推移

(單位：百萬「달러」)

	總延支給輸入	60日 以内	60日 超過 90日 以内	90日 超過 120日 以内	120日 超過 180日 以内	180日 超過 1年 以内	1年 超過
1978	3,635.9 (100.0)	416.3 (11.4)	2,172.5 (59.8)	283.3 (7.8)	318.1 (8.7)	112.2 (3.1)	335.5 (9.2)
1979	6,893.4 (100.0)	2,078.3 (30.1)	2,287.2 (33.2)	1,667.8 (24.2)	292.2 (4.2)	266.0 (3.9)	301.9 (4.4)
1980	10,116.7 (100.0)	1,748.3 (17.3)	1,877.9 (18.6)	1,776.0 (17.5)	3,993.7 (39.5)	377.8 (3.7)	343.0 (3.4)
1981	10,096.8 (100.0)	1,256.5 (12.4)	1,052.0 (10.4)	754.5 (7.5)	6,263.7 (62.0)	429.2 (4.3)	340.9 (3.4)

註 1) ()内는 構成比(%)임

2) 1978~1980 : 国内輸入 Usance 包含 (期間에 關係없이 60日 以内에 包含)

1981 : 国内輸入 Usance 除外

4. 유전스 輸入과 對内外 金利와의 關係

輸入業者가 自体資金이 부족하여 信用을 供与받 아 물품을 輸入하는 방법에는 国内信用을 이용하는 方法과 海外信用을 利用하는 方法이 있다. 즉, 国内에서 「원」貨資金을 조달하여 一覽拂條件으로 物品을 輸入하고 一定期間後 「원」貨措入金을 상환하는 方式과 海外로 부터 직접 信用을 供与받아 延支給(Usance, D/A)方式으로 物品을 輸入하고 一定期間後 輸入代金を 決濟하는 方式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어느方法을 採하더라도 輸入業者 信用受惠에 따른 資金코스트를 負擔하여야 한다. 따라서 輸入業者가 이중 어느方法을 採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들 各 方法의 資金코스트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国内資金調達事情이 원활하고 国内資金調達코스트가 對外信用코스트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은 경우에는 「원」貨資金을 조달하여 物品을 輸入하게 되고, 反對로 国内資金調達が 어렵거나 国内資金

延支給輸入対象品目 吳 期間変遷状況

□ 特輯：原油導入과 유전스

	75. 2. 14 ¹⁾	75. 7. 18	76. 6. 3	77. 8. 8	77. 9. 15	77. 9. 15	77. 12. 31	79. 8. 1	79. 12. 27	81. 7. 21	82. 2. 1
1. 輸出用原資材	360日 以内		期間短縮： 180日 以内		期間短縮： 130日 以内	期間短縮： 120日 以内	期間短縮： 90日 以内 (但, 標準航海日数 10日 以下地域은 60日 以内)	期間延長： 120日 以内	期間延長 180日 以内 (標準 航海日数 10日 以下地域은 90日 以内)	品目追加：玄米	
2. 別途指定品目 ²⁾	① D/A 360日 以内 ② Shippers Usance 以内 ③ Banker's Usance: 180日 以内			品目追加： 180日 以内							2. 前日 選定 ³⁾ 方式変更 (Positive 방식 → Negative 방식)
3. 保税区域 또는 航空機 (船舶) 内에서 出入国者에 販賣하기 위한 物品											
4. c. c. c. 信用供与로 輸入하는 品目	180日 超過 360日 以内 小麦, 옥수수, 大豆	品目追加：牛脂									
5. c. c. c. 信用供与로 輸入하는 品目	360日 超過 輸出用原資材인 原綿			品目追加：팥소	品目追加：					品目追加：玄米	品目削除： 팥소, 大麦

註 1) 「延支給輸入運用要領」制定當時
 2) 1977年 5月 以後에는 商工部長官이 每分期別로 財務部長官과 合意하여 定하여 施行하는 品目과 從量稅品目을 除外한 品目
 3) 許容品目：① 実行因稅率 20%를 超過하는 品目과 從量稅品目을 除外한 品目
 ② 既存 延支給対象品目으로 商工部長官이 정한 品目
 ③ 主務部長官이 確認한 農藥 및 그 原料와 醫藥品原料

對内外資金調達코스트比較

(單位：%)

	1978	1979	1980	1981	1982. 2末
A. 對内資金調達코스트 ¹⁾	18.50	18.50	22.78	19.26	15.50
B. 對外 1. B/A rate (3個月) ²⁾	8.23	10.97	12.83	14.90	13.60
資金調達 2. Spread ³⁾	1.00	1.00	1.00	1.00	1.00
cost 3. 換率上昇率 (前年末比)	—	—	13.78 ⁴⁾	6.15	1.64
(1+2)×3	9.23	11.97	29.52	23.03	—
金利差 (A-B)	9.27	6.53	△6.74	△3.77	—

註 1) 商業어음割引率(年間平均, 優良業체基準)
2) 每月末平均 3) 1%假定 4) 80. 1. 12對比

調達코스트가 對外信用코스트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유전스輸入등 延支給方式에 의한 輸入을 挾함으로써 物品輸入에 따른 資金코스트를 最小化하려 할 것이다. 또한 對外信用코스트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표면상의 信用供与金利 外에 換率變動에 따른 資金負擔도 勘案되어야 하는 바, 換率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上昇幅만큼 코스트는 높아지게 된다.

- A; 国内資金調達코스트 = 国内金利 + 其他附帶費用
- B; 海外信用코스트 = (國際金利 + spread + 其他附帶費用) × 換率變動率
- A < B : 国内信用 選好
- A > B : 海外信用 選好

過去 우리나라는 民間신용한도管理方式에 의한 金融緊縮政策을 지속해 오며 따라 国内資金調達이 어려웠고, 또한 国内金利에 비해 월등히 높은 水準을 持續하여 国内資金調達코스트가 매우 높았던 반면, 國際金利는 비교적 低水準에서 安定勢를 보였고, 換率이 長期間 安定되어 있었으므로 換리스코드 排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전스등 海外信用에 의한 輸入選好現象이 강력히 일어났다.

그러나 第2次 「오일·쇼크」의 여파에 따른 인플레이션 抑制을 위한 美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高金利政策으로 79年 下半期以後 國際金利가 上昇勢를 지속하였다. 한편 對内的으로는 80年初에 換率引上과 換率流動化를 실시함으로써 환율상승으로 인한 資金負擔까지 加重되어 對外資金調達코스

트가 급격히 상승하여 国内資金調達코스트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81年 延支給輸入은 80年 水準에 머물렀다.

向後 전망을 보면, 国内金利의 잇따른 引下措置로 對内外資金調達코스트의 差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今年初에 国内通貨管理方式을 종전의 民間信用限度管理方式에 의한 直接規制方式에서 傳統的인 間接規制方式으로 轉換함에 따라 国内資金 調達与件도 다소 好轉될 것으로 보이는 등 유전스를 비롯한 海外信用에 의한 輸入 選好度를 다소 低下시킬 요인이 있는 반면, 지난 2月 政府가 延支給輸入對象品目擴大 및 輸入担保金 積立免除등 일련의 延支給輸入規制 緩和措置를 취한 바 있어 延支給輸入을 增加시킬 요인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한편 國際高金利現象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매우 不確實한 상태다. 國際高金利를 先導했던 美国의 主要金利가 昨年 4/4分期 이후 下落勢를 보이고 있고 「달러」貨도 弱勢를 示顯함에 따라 自國通貨價値의 安定을 목적으로 高金利政策을 견지해온 餘他 先進國들이 景氣浮揚을 위해 金利를 引下할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收束을 위한 선진각국의 基調的 緊縮持續으로 말미암아 過去와 같은 低水準으로 돌아갈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OECD는 앞으로 國際金利는 景氣沈滯등으로 當분간 下落勢를 보이다가 景氣回復에 따른 資金需要增大로 今年 中盤부터 反騰勢를 보여 前年과 같은 記錄的인 수준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자리숫자의 高水準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NIESR 역시 國際金利는 當분

主要品目別 延支給輸入 実績推移

(決済基準)

(単位：百万「달러」)

	1978					1979					1980					1981					
	총 수입	연지급 수입 수	연지급 수입 비중	구성비	총 수입	연지급 수입 수	연지급 수입 비중	구성비	총 수입	연지급 수입 수	연지급 수입 비중	구성비	총 수입	연지급 수입 수	연지급 수입 비중	구성비	총 수입	연지급 수입 수	연지급 수입 비중	구성비	
原油	2,030.0	1,969.8	97.0	54.2	3,175.4	3,021.7	98.3	43.8	6,000.1	4,628.3	77.1	45.7	6,606.2	5,032.7	76.2	49.8					
原綿	374.4	264.0	70.5	7.3	425.2	413.0	97.1	6.0	624.3	608.0	97.4	6.0	569.2	503.2	88.4	5.0					
原木	585.0	108.0	18.5	3.0	936.8	509.2	54.4	7.4	807.1	627.9	77.8	6.2	618.7	390.9	63.2	3.9					
石炭	94.9	15.1	15.9	0.4	254.6	131.1	51.5	1.9	402.2	274.2	68.2	2.7	693.9	549.2	79.1	5.4					
鉄鉱	542.5	154.4	28.5	4.2	582.6	240.2	41.2	3.5	584.7	302.1	51.7	3.0	521.0	174.3	33.5	1.7					
古鉄	177.0	50.5	28.5	1.4	214.1	94.3	44.0	1.4	271.2	236.2	87.1	2.3	221.0	138.5	62.7	1.4					
肥料原料	66.5	21.1	31.7	0.6	88.9	40.0	45.0	0.6	111.8	92.5	82.7	0.9	125.2	97.1	77.6	1.0					
프	112.0	5.4	4.8	0.1	176.5	104.3	59.1	1.5	213.1	173.2	81.3	1.7	198.6	103.7	52.2	1.0					
自動車部品	355.0	87.8	24.7	2.4	304.6	132.4	43.5	1.9	211.3	120.6	57.1	1.2	219.6	136.1	62.0	1.3					
糧穀	349.0	319.7	91.6	8.8	754.5	618.5	82.0	9.0	900.2	681.4	75.7	6.7	1,432.2	853.7	59.6	8.5					
小計	4,686.6	2,995.8	63.9	82.4	6,913.2	5,304.7	76.7	77.0	10,126.0	7,744.4	76.5	76.6	11,205.6	7,979.4	71.2	79.0					
總計	12,433.5	3,635.9	29.2	100.0	16,869.2	6,893.4	40.9	100.0	19,170.4	10,116.7	52.8	100.0	21,526.9	10,096.8	46.9	100.0					

註 1) 연지급수입비중 (%) = 연지급수입 / 총수입

註 2) 구성비 (%) = 당해품목 연지급수입 / 총연지급수입

□ 特産：原油輸入과 古鉄

主要機關 金利展望

(年利 %)

		80·4/4	82·1/4	82·2/4	82·3/4	82·4/4	81년	82년
DRI ¹⁾	美国 Prime rate ³⁾	17.33	15.44	17.61	18.40	17.62	18.95	17.27
	「유로·달러」金利 ³⁾	15.36	14.79	16.69	17.11	15.92	17.05	16.13
WEFA ²⁾	「유로·달러」金利 ⁴⁾	13.24	11.76	10.98	10.66	10.60	13.24	10.60

資料: 1) DRI, Review of the U.S. Economy 1981. 11月号

2) WEFA, Exchange rate Outlook 1981. 11月号

3) 期間平均

4) 期末基準

간 「인플레이션」率을 上廻하는 높은 實質金利水準을 지속하고 83~84年以後에나 10%以下로 下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主要經濟予測機關들이 最近의 金利下落趨勢가 2/4分期를 고비로 反騰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어 國際高金利의 대폭 完화는 期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같이 國際金利展望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國

內金利가 비교적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어 유전스 등 海外信用에 의한 輸入選好도는 다소 低下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國內物價安定에 力點을 둔 정부의 通貨政策 등에 비추어 國內資金調達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一定水準의 延支給輸入은 不可避할 것으로 예상된다. *

□ 海外短信 □

英国, 北海産 油價 引下 — OPEC에 큰 影響 미칠 듯

지난 2月8日 北海産 原油價格을 배럴당 1.5弗씩 引下시킨바 있는 英國의 國營石油会社인 B-NOC는 2日 또다시 3月1日부터 6月末 까지 北海産油價를 배럴당 4弗씩 條件附로 追加 引下할 것을 提議하고 BP, Shell等 輸入商들이 이를 受諾함으로써 英國의 北海産 原油價는 今年들어 두번에 걸쳐 總 5.5弗이 떨어지게 되었다.

BNOC가 이번엔 追加로 價格을 引下시키면서 부과시킨 條件은 비록 引下價格의 發効日자가 3月1日이고 每分期末에 價格을 再調整하는 것이 關係로 되어 있으나 2/4分期末인 6月末까지는 石油市場에 특별한 事態가 發生하지 않는 한

價格을 凍結시킨다는 것이 그 첫번째이며 두번째는 前述한 특별한 事態의 基準을 明示한 것으로 現在 34弗로 되어있는 OPEC基準油價가 4弗以內로 떨어지거나 北海産과 油質이 거의 같은 아프리카産 油價가 5弗以內로 떨어지는 경우는 이를 특별한 事態로 보지 않는다고 規定한 것이다.

BNOC의 이같은 措置는 不遠間 OPEC 基準油價가 最高 4弗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豫想을 분명히 한 것으로 業界에서는 OPEC이 臨時總會 召集을 앞두고 모종의 決定을 굳히게 만들 과감한 시도라고 이를 환영하였다.